

포장기술사의 저변 확대 필요성 증대

포장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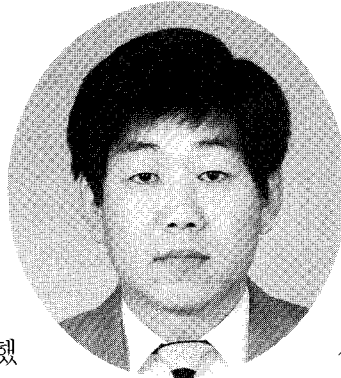
손기주 /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비**록한 면을 많이 듣고 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장기술사 합격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손기주 선임연구원은 합격의 기쁨을 표현하기 보다 앞으로의 포장기술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손 연구원이 포장과 인연을 맺은 계기는 1987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現 산업디자인진흥원)에 포장개발부에 입사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

그 후 미원(現 대상)에서 포장표준화, 포장기획 업무,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에서 포장컨설팅 분야의 일을 하기까지 포장 분야에서만 일했다고 한다.

“사실 현재 포장 분야만큼 이론적으로 낙후된 분야도 없습니다. 변변한 개론서 하나 없을 정도니까요. 지금까지는 포장 관련 종사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만 연구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정 수준의 이론적 체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미진한 분야는 함께



연구하고 이론적 뒷받침이 미약한 부문은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안타까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또 하나는 현재 산업디자인진흥원 소속으로 되어있는 포장시험검사소가 독립된 기관이 되거나 포장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각종 포

장 시험이 외부 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포장기술사는 포장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야하는 ‘종합자’의 위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포장기술사 선배와의 많은 교류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많은 분들이 포장 기술사 시험에 응시해 포장 기술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누구에게나 포장분야에서 일하라고 권할 정도로 포장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며, ‘포장일이 친척이다.’라는 말로 손 연구원과 포장인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포장 산업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 본다. ☐